

특별취재

군산 월명공원 가뭄피해 대비
유관업체 공조 행정력 집중

군산시는 전례 없는 폭염과 오랜 가뭄으로 월명공원 숲 복원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군산산림조합(조합장 고석빈), 유관업체와 공조하여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명공원은 소나무재선충 피해 복원지 조림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으로 큰 나무 위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가뭄 피해에 취약하다.

이에 군산시는 도시숲 조성지 주요 수목에 물줄머리를 달아 자동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7월부터 산림조합의 협조를 관수차량 2대와 양수기 3대를 동원하여 이를 간격으로 물주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발방치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기업체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지난 7일 교내 산학협력관 2층 시청각실에서 기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익산공정발전협의회와 익산여성경제인협회 등 약 40여명의 기업체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관련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로 시작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시기와 훈련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석남 학장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청소년복지사업 1,000만원 기탁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지부장 송기무)는 8일 오전 익산시청 시장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송기무 지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복지사업 후원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청소년비전카드 이용자인 농촌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 80명의 특기적성 교육과 부족한 교과목 보충을 위한 학원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송기무 지부장은 "이 후원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현을 시장은 "어려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준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시는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신입순경 환영식 개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6일과 7일 지구대장 및 순찰팀장 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보경찰에서 정식 임용을 한 최경주 순경과 경찰학교 8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첫발을 내딛는 김성연 순경, 김가희 순경의 환영식을 개최했다.

최경주 순경은 1년동안 경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진정한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이 되었고 김성연 순경, 김가희 순경은 신입경찰관으로서 시보경찰을 거쳐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최 순경은 "중앙지구대로 정식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어 영광이고 뜻깊은 환영식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며 선배들의 진심어린 환영을 가슴속에 담아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립예술단 공연

시민10명 중 5명 '만족'

군산시는 시민과의 소통 및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 지난달 시민과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예술단 공연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결과 총 334명의 응답자 중 만족(56%), 매우만족(27%), 보통(17%) 순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절반이상(68%)의 관람객이 연 3~7회 이상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공연을 선택할 때 감상동기(48%)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람객들의 공연정보 습득 경로는 홈페이지(31%), 포스터·리플렛

및 페이스북 지인 소개(16~17%) 순으로 나타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연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공연 유료화시 3,000~10,000원의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 적정이 57%, 저렴한 편이 23%라고 응답했다.

유료화 공연시 관람객 눈높이와 선호도에 맞춰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추진해 유료화 공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희망 장르는 가족음악회(29%), 정통합주곡 및 클래식(25%), 뮤지컬(15%)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시는 내

년도 공연프로그램 선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의견으로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공연 추진과 빅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막 설명, 공연예매 후 불참하는 관람객에게 예매제한제도 공연 장르 확대 등이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시립예술단과 공유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고객지향적 운영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박물관개항장터·JC바자회 공동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매주 토요일 아나바다·프리마켓 형태 운영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박물관 개항장터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JC바자회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항장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장터라는 주제로 군산의 대표 청년단체인 JC에서 추진하는 바자회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다.

'박물관 개항장터'는 2013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자 및 시민들로 구성된 판매자들이

아나바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개항장터에는 박물관 대표 문화상품인 근대마당놀이 수탈전을 비롯하여 타와공화국 흡수리듬의 사물놀이와 JC에서 준비한 댄스, 미술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전래놀이 체험도 할 수 있어 박물관 방문하는 가족, 연인들이 즐겁게 토요일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개항장터

가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야간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군산의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물관은 지난달부터 개항장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해 관광객에게 저녁시간 불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문동신 군산시장, 군산동고등학교 희망특강 실시

다양한 삶의 철학·희망메시지 청소년들에게 전달

문동신 군산시장은 8일 군산동고등학교에서 학생 24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특강을 실시했다.

군산동고등학교는 1962년에 개교하여 5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총 1만4948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사회 각 분야에 진출시킨 명문 고등학교이다.

이날 특강에서 문 시장은 평소 지론인 '반년이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인연'이야기를 주제로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

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스라엘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철학들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하루 일과를 마감해 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28만여 명의 군산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시장운영으로 하루 24시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의 대화를 인용 "군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식량, 강력

한 병사, 그리고 백성과의 신뢰 세 가지로, 그 중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신뢰(信賴)이며,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시장직을 수행하며 크고 작은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과의 신뢰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곱 번째 군산시장 희망특강은 오는 10월 4일 군산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8일 중증 장애인시설인 청록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추석명절을 시설에서 외롭고 쓸쓸히 보낼 어려운 이웃과 그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시장은 청록원(중증장애인가족주거시설), 영보은혜의집(노인공동생활가정), 이리보육원(아동양육시설) 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하고

이웃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어르신 아동들과 종사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환경과 운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시설을 직접 돌아보며 세심히 살폈다.

정현을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명절을 함께 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사정 등으로 함께 보내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 단체, 기관 등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평소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독지가, 기업체, 후원단체 등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나눔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품은 어려운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소년 희망나무프로젝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비응항 개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

전 세계 연안 동시에 바다 청소 해양환경보전 실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종빈)은 '제16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를 오늘 군산 비응항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해양수산 유관기관, 업·단체(1사 1연안 35개사), 어업인 및 학생 등 3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비응항 해양정화 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 비응항 이용 어업인과의 간담회, 해양분야 유공자 표창 해양쓰레기 줄이기 자율 실천 결의 및 연안정화활동과 부

대행사로 해양환경 사진전, 해양환경체험 등이 실시된다.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전 세계 연안에서 동시에 바다를 청소하는 가장 큰 규모의 해양환경보전 실천 행사이다.

이 행사는 1988년 미국의 민간단체에서 처음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진해오다 2010년 이후부터는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주도로 실시해 오고 있다.

군산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11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동안 제기차기, 비석치기,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과 로컬푸드 퀴즈쇼, 우수농가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산자와 소

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교류행사를 펼친다.

또한 육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시식으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한다.

김충열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일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서문)매일을 방문하여 과일, 떡 등 명절 제수용품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풍성한 명절이 되길 기원하는 등 직접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병홍 의장은 "시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상인에게는 매출증가에 따른 이익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시장 장보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의원들은 "품질 좋고 저렴한 지역특산품과 덩 문화 등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최종선정

군산시 대야면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소재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군산시는 대야면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17년까지 국·도비 68억 원, 시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80억 원을 투입해 구면사무소, 복지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야면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해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1~2개 읍면을 사업 대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의 경우 사수·화현면을 사업대상지로 발굴해 내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인구감소, 노령화, 이농현상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현재 개정, 임피, 성산, 옥산 등 4개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산=문정곤기자